

8 기획

막을 길 없는 온라인 혐오 표현 대안 마련 시급

한진석 기자 1_jinseok@knu.ac.kr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혐오 표현이 증가하면서, 의견 표현을 넘어 인권 침해·사이버불링에 해당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를 두고 관련 조사 결과와 심각한 사례들을 고려해 제재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 기존처럼 자유로운 의견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신고 누적 시 삭제 뿐 별도 조치 없어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은 전국 약 400개 대학의 구성원들이 사용하고 있다. 각 학교 기존 커뮤니티가 제한적 소통만 가능했던 데 반해, 익명으로 학내외 모든 사안에 대해 자유로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에브리타임은 10년 새 가장 큰 대학생 온라인 공론장이 되었다. 이같은 추세는 코로나19 상황과 함께 대학의 비대면화가 진행되면서 가속화되고 있다.

익명성을 고수하는 해당 커뮤니티 특성상, 혐오 표현의 수위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불법적인 신상 공개와 비방이 이어져 최근에는 사회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한 대학생이 에브리타임에 위로를 구하는 글을 올렸으나, 일부 학생들이 모욕적인 댓글을 달자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만 사건은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우리대학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게시판을 확인한 결과, 해당 게시판에 특정 인물, 성별, 소득 수준, 학벌 등에 관한 각종 혐오 표현이 게재되고 있었으며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었다. 9월 7일 기준 가장 인기 있는 글로 선정된 게시물 역시 '코로나 때문에 혐오가 더 육 극심해졌다'는 제목의 글이었고, 130명이 넘는 이용자가 공감을 표하고 있었다.

에브리타임은 인증을 통해 특정 대학의 게시판에는 해당 대학의 구성원들만 모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즉, 각 대학의 커뮤니티를 사기업이 마련한 체계로 옮겼을 뿐, 여전히 에브리타임 내에서

혐오 표현을 전달하거나 받는 사람은 같은 학교의 구성원인 것이다. 문제는 혐오 표현에 대해 에브리타임은 '신고 누적에 따른 글 삭제'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대학 역시 사기업이 운영하는 커뮤니티라는 점 등을 이유로 실태 파악이나 대안 마련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있다. 신고 누적에 따른 글 삭제 조치는 소수 의견을 차단하는 장치로도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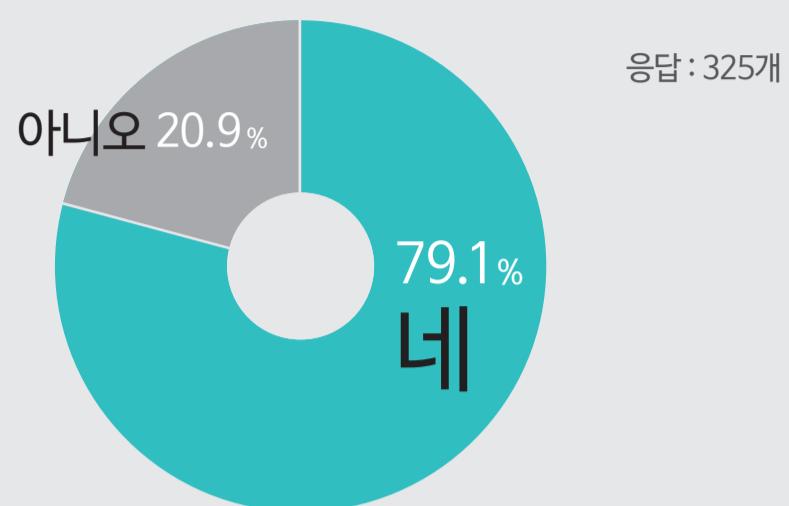
우리대학 성평등 관련 학생 기구에 속해 있는 A씨는 "소속된 기구에 대한 비방이나 혐오 발언이 게재되어도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며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반박하는 소수의 의견이 오히려 다수의 신고 누적에 의해 삭제되기가 쉬운 시스템"이라며 현재 이용 규칙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온라인 인권침해 실태조사 전담기구 부재

참여연대가 2020년 12월 발표한 '에브리타임 내 혐오표현 관련 이용자 설문과 대학 정보공개청구 결과 분석'에 따르면, 우리대학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포함해 학내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인권센터를 아직 설립하지 않은 우리학교에서는 성평등 관련 문제를 제외하고 온라인 인권침해 신고 접수나 처리 전담 기관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위의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 325명 중 약 80%의 이용자가 에브리타임 이용 도중 불쾌감을 느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각종 혐오 표현을 말한 비율은 70%를 넘겼다. 이용자의 대부분이 혐오 표현으로 인한 불쾌감을 경험해 온 것이다. 그러나 실제 게시글을 신고한 경험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이용자는 약 38%뿐이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소용없을 것 같아서(34.8%)'가 가장 많았다. '에브리타임 이용 규칙 개선에 동의하나'는 질문에는 약 80%의 응답자들이 '그렇다'라고 답했다. 현재의 이용 규칙은 혐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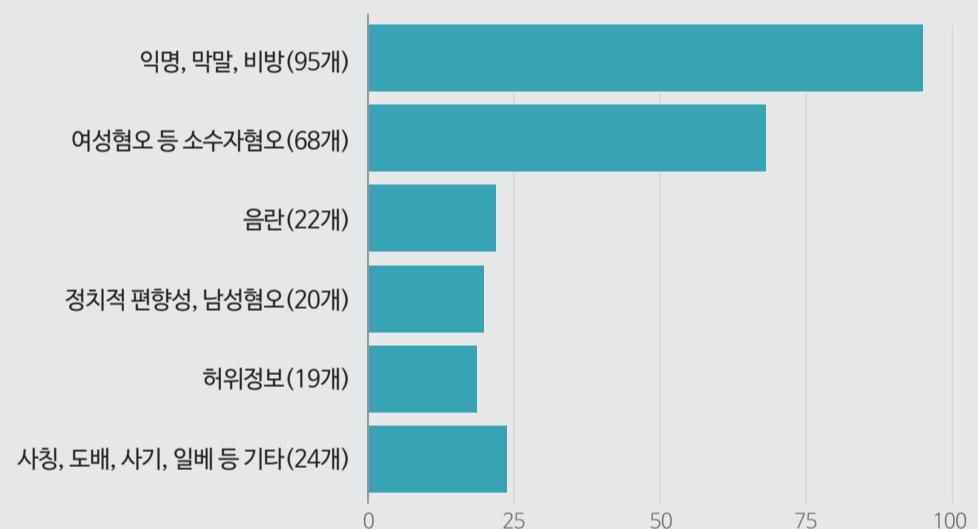
| 에브리타임을 이용하면서 불쾌감을 느낀 경험이 있는지



출처 :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2020.11.03)

| 에브리타임을 이용하면서 불쾌감을 느낀 이유

단답형 / 응답: 248개



출처 :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2020.11.03)

79%에 가까운 '에브리타임'의 이용자들이 불쾌감을 느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표현을 막지 못하고,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데 대다수의 이용자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교육 · 실태조사 대학의 적극 관심 필요

일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각 대학이 온라인 커뮤니티 상 혐오 표현과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에브리타임의 혐오표현 문제는 기업의 시스템 개선과 더불어 대학 인권센터의 적극적인 온라인 인권 보호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에브리타임의 경우 커뮤니티의 운영을 사기업이 맡고 있을 뿐, 능력 배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이용자가 대학 구성원과 일치하기 때문에 실태조사나 관련 교육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온라인 상 혐오 표현에 대해 대학 차원에서 교육에 앞장서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조선대학교 교육학과의 배영주 교수는 대학생의 혐오 표현에 대한 한 연구에서 "상이한 관점과 의견을 가진 사람들 간에 진지한 대화를 유도하고 의견을 조정해 낼 수 있는 능력 배양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타인의 공격으로 심리적, 사회적 타격을 입고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는 혐오 표현 대상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목소리를 내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 상호 엇갈리는 주장과 의견을 조율해 낼 수 있는 능력 배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에브리타임과 이용자들에게 자율적인 혐오 표현 억제를 기대하는 것보다 대학을 비롯한 외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으로 보인다. 우리대학 언론정보대학원 이종임 교수는 에브리타임의 혐오 표현을 분석한 그의 연구 <청년 세대의 분노와 혐오 표현의 탄생>에서, "에브리타임의 의견 표명 게시글은 대부분 의견 공유보다 타인을 혐오하고 비난하는 방식으로 변해가고 확산되고 있다"며 "청년 세대가 혐오 인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사회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새로운 표출 방식이 마련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문화·정치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